커넥티드 카, 커넥티드 맨

(역대상 24장 1~31)

1.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2.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3.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4.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열여섯 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여덟 명이라
5.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커넥티드 카, 커넥티드 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커넥티드 카, 커넥티드 맨'

2020년이 되면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커넥티드 카, 즉 스마트카라는 단어가 익숙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인터넷에 연결한 전화기가 스마트폰인 것처럼 커넥티드 카는 자동차를 인터넷에 연결한 것이므로 스마트카입니다.

이 스마트카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도 뉴스에서 가끔 보도가 되지만 무인자율운행입니다. 사람은 앉아있지만 운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행선지를 찍어놓으면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알아서 가고 운전하는 사람 없이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의 원격제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하면 아이를 학교에 태워다주거나 데려오거나 하는 것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할 수 있고, 주차도 차가 알아서 빈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능이 있는데 이런 차를 커넥티드 카라고 합니다.

커넥티드나 스마트의 핵심에는 연결이 들어있습니다. 전 세계 컴퓨터가 거대한 하나의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인터넷이고, 이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 연결됨으로 스마트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인터넷이 과연 정보의 바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가 아닌 정보의 아주 작은 하나의 연못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데 참 정보의 바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터넷으로 알 수 없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속마음, 자녀들이 바깥에서 무엇을 하는지, 내일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소원하고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는 일들의 성패여부, 이 세상 끝날 때까지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 같은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되면 두 달 안에 다른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타인의 죄를 폭로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숨겨진 죄악까지도 다 아시고, 인터넷에 결코 등재되지 않은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정보의 바다가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잠1: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안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작은 연못에 불과하게 만들 정도로 참 정보의 바다와 지식의 바다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됨을 뜻합니다. 이 연결 동작을 여호와 경외로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참 정보의 바다에 연결되지 않을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공교로운 것인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인지 모르지만 스티브 잡스는 휴대폰을 인터넷에 연결시키며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치 잠언 1장 7절에서 세상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연결되지 않은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것을 스마트폰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는 휴대폰들은 상대적으로 stupid(어리석은)폰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는 곧 연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초연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서 정말로 어리석고 스마트하지 못한 존재가 인간인데 깨닫는 게 제일 늦습니다. 인터넷에 연결하는 사업을 최첨단 IT산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미개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하 만물들은 진정한 정보의 바다인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바위나 산이나 강조차도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연결됨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휴대폰이 스마트폰이라면, 참 정보의 바다이신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연결된 나무 한 그루, 나비 한 마리, 벌 한 마리도 스마트입니다. 스마트나비요 스마트벌입니다.
지금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가있는 대통령과 나비를 비교해 봅니다. 대통령은 상징적인 의미로 인간 중에 제일 잘나고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나비 한 마리와 비교해보면 나

비는 스스로 나비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 일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 스마트하다는 것은 자기 신분과 지위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판단됐기에 국민들이 촛불시위를 하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냈습니다. 그렇게 치자면 나비와 대통령 중에 나비가 더 스마트합니다. 파리도 자기가 해야 될 짓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은 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나비보다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될 일만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어있을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비는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참 정보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참 정보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정보의 바다이신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연결되어 있는 나비는 스마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정보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움직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 일평생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므로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생각해봅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옳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의 속성이 되도록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구한 것입니다. 재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연결이 되는 스마트 맨이 되길 바랐고, 커넥티드 맨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를 성경의 다른 어떤 기도들보다도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하나님께 커넥티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정하고 이런 결말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괘씸해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전과 관계되어서 처음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구 만원으로 쳤을 때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의 비용이 성전건축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레위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제비를 뽑아 레위인들의 근무순서를 이십사 반차로 나누고, 읽지 않은 후반부에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레위인들의 이십사 반열을 또 다시 언급합니다. 제사장의 이십사 반열과 레위인의 이십사 반열이 정해지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며 유의해야 할 점은 저자인 에스라의 의도는 자신의 시대인 포로기로부

터 방향을 과거 다윗 시대의 사건을 기록하며, 역사적 사건을 의도적으로 배열함으로서 영광스러웠던 그 시대를 재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언약에서 약속되었던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내다보고 알게 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자기 손에 들어온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들어갈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라는 이야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고,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도 십자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이고, 오늘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만한 비용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고지하는 의미보다는 비유적인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다.

금 십만 달란트는 쉽게 말해 25톤 덤프트럭으로 137대 분량입니다. 은 백만 달란트는 1,370대가 날라야 하는 분량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은 104톤으로서 덤프트럭 4대 분량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비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생각지도 않는 거금 일억이 주어진다면 억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배인 십억이 주어진다면 뒤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생활화의 가치는 억 소리가 나올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1경 3,500조의 돈이 내게 들어왔을 때의 상태와, 십자가 생활화를 허락받은 상태가 비유적으로 같은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기에 그러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의 명단을 통해서 이야기 하려는 것은 십자가 생활화를 평생 직업으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빌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 사람의 돈이 1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60조 원의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1경 3,500조를 받았을 때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처럼 평생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빌게이츠의 100조 원도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는 자에게는 새 발의 피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입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1경 3,500조를 가졌을 때에 감격이, 십자가를 가진 자에게는 성령 충만 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로서 고전 2: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합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이 1경 3,500조의 거금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아서 마음이 터져버리고 마는 것처럼,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가치를 가졌을 때에 같은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성령 충만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정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가치를 십만 원정도로 느낄 것이고, 어떤 사

람은 일억을 가진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좋으면 그것 말고는 아무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인의 명단을 통해서 십자가 생활화를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커넥티드 맨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평생 십자가 생활화를 직업으로 삼는 레위인이 직업 활동으로 하는 일은 바로 연결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빈민이었습니다. 당시에 사회가 제공하는 일은 부잣집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연명하는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룻은 자기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은 파견 나가는 곳이고 내 진정한 직업은 십자가 생활화뿐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고 레위인의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내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이시오, 내 기뻐하는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 주님 안에 있는 내 마음은 주님이 아버지를 향해 고백하시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로 기뻐하는 것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있는 십자가로부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터널이 만들어지고 연결 통로가 되셨습니다. 내 마음이 그곳을 따라 올라가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로의 연결 통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참 정보의 바다로부터 흘러나오는 지식에 따라 살게 되고 행동하게 될 것인데, 스마트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장소가 하늘과 연결된 스마트한 장소가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스마트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연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이십사 반열의 이야기는 다윗이 조직화 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에스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케넥티드 맨이 되라는 것인데, 십자가 생활화를 평생 직업으로 삼는 레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은 비유적으로 말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1경 3,500조를 손에 쥐었을 때 갖는 그 기쁨이 십자가 복음을 가졌을 때 갖는 기쁨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가치 있는 십자가 생활화를 내 평생 직업으로 삼고 레위인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커넥티드 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 적용해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인 상태입니다. 닭과 오리가 하루에 육십만 마리가 매몰됩니다. 심지어 놀이공원의 희귀 새들도 매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국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져서 탈당을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또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씨도 대통령으로 나오겠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탄핵을 하면서 보수측 사람들과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보수측 사람들은 촛불집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빨갱이라고 하는데 뭘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오리무중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인 상황에 질서를 가져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자 질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면서 자리 잡혀 갈 수 있을까요?

나는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어느 정당에 속한 회원조차 아니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 제사장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내려올 때에, 내 안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 삶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선생님이든지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지 거기에 국한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비록 실업자일지라도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늘과 땅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연결만 하면, 나는 정치와 무관하더라도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있는 한, 내가 지금 처한 처지와 신분과 지위와 아무 상관없이 이 나라에 정국에 질서를 부여하실 수 있고 우리 민족과 나라에 운명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커넥티드 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따라 내 마음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고 질서를 잡아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 정보의 바다인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리에서 연결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로 커넥티드 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주저할 것도 의기소침할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1경 3,500조를 쥔 돈만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도 십자가를 쥐므로 생기게 해주셔서 평생 레위인의 신분을 자각하게 하시고, 평생 어디를 가든지 제사장처럼 커넥티드 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